연꽃, 그윽함과 청초함에 취하다

전국 7~8월 연꽃축제 일정



사진은 지난해 봉은사에 핀 연꽃.

사진제공=봉은사

봉은사 등 도심·수도권서도 향유
전북·전남 등 거대 군락 '눈길'
음악회·힐링콘서트 등 문화공연도
여름 맞은 '더위 사냥' 프로그램

진흙탕 속 곱게 드러난 얼굴이 마치 한 줄기 햇살 같다. 온통 시커먼 연못물을 환히 밝히니 내 마음도 밝아지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연꽃밭으로 발길을 향하나 보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빨갛고 하얀 연꽃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꽃봉오리지만 이내 청초하고도 고고한 그 자태를 드러낼 것. 전국에서 펼쳐지는 연꽃의 그윽한 향연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9월 6일까지 연꽃으로 경내를 장엄한다.

봉은사 연꽃축제는 사찰입구인 진여문부터 법왕루까지 500여개 연꽃화분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영가들을 위한 연꽃공양 접수가 진행되며, 봉은사는 연꽃공양 동참자들을 위해 연꽃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이벤트도 함께한다. 접수는 봉은사 접수처 또는 전각 봉사연등을 통해 가능하며, 동참금은 1화분 당 10만원이다. (02)3218-4828

15회째 연꽃축제를 이어오고 있는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올해도 만개한 연꽃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7월 1~9일 열리는 '연꽃愛 반하다'에서는 음악회, 힐링콘서트,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일인 1일에는 '재즈 디바' 웅산과 라틴 타악기의 거장 류복성 재즈 올스타즈 등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또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시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8일에는 108 보물찾기 및 포토존 등 행사(오전 10시~), '카이스트 출신 스님'으로 유명한 도연 스님의 힐링 토크 콘서트 및 버스킹 공연(오후 1시~),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오후 2시~) 등이 진행된다. (031)527-1951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지 일원에서는 9,900㎡에 달하는 대규모 연지에서 제16회 연꽃축제 '화중생련'이 펼쳐진다.

'불 속에 연꽃이 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월 7~16일 청운사 및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가수 정수라의 특별무대와 아리랑 오케스트라 등 풍성한 축제무대가 준비됐다.

개막일인 7일 오후 3시부터는 식전행사가 열리며, 이후 5시부터 개막공연으로 △심흥재 전국국제행위예술제 위원장 △이강근 무향소리연구원장 △예사랑무용단 △김효식 작곡가 △두창균 마술공연예술가 등이 무대에 오른다.

8일 오후 5시부터는 가수 정수라와 오케스트라 하모닉이 함께하는 대망의 무대가 오른다. 이어 7일 오후 5시부터 무행 김길두·청록 손영환·동우 김학길의 먹 행위를 비롯해 다양한 특별무대가 진행된다. (063)542-8943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올해 경관조명을 새롭게 단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7월 7~16일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부여군은 올해 축제를 위해 서동공원 북쪽 약 400m 구간 '서동선화존'에 꽃터널을 조성하고 다양한 입체조형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꽃터널은 야간에는 LED 조명으로 변신해 다채로운 일루미네이션을 뽐낼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만개할 연꽃의 향연이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또 궁남지 서문주차장 일원에는 '패밀리존'을 조성해 서동선화 캐릭터와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 조형물의 조명을 꾸민다. 이밖에 '로맨틱존' '설화존' '정열존' 등의 7개 테마를 구성하고 낮과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041)830-2211~2

남도에서는 '동양 최대 백련자생지'가 벌써부터 불자 및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안군이 주최하는 '제21회 **무안연꽃축제**'는 8월 12~15일 동양 최대 백련자생지로 알려진 무안군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된다. '사랑·소망·인연'이 주제인 올해 행사는 한여름 무더위 탈출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물놀이장과 연계해 '한 여름 크리스마스 광장'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물총페스티벌 △얼음놀이터 △팥빙수 나눔 등을 진행한다.

특히 회산백련지와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의 '연자방LED 소망등 달기'를 비롯해 △100m 연가래떡 나눔 잔치 △양파 제기차기 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오감만족 사냥에 나선다. (061)450-5472

이밖에 **태고종 봉원사**(서울 서대문)는 8월 5일, **서울 조계사**는 9월초까지 연꽃축제를 연다.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미정. (02)392-300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범종의 眞美 한 자리에…

불교중앙박물관, 2017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

현존하는 우리나라 범종과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범종의 복제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17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을 6월 20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범종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범종은 불교의 중요한 의식법구로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조성돼 사용되고 있다. 정교한 세부장식과 웅장한 울림소리로 동양 삼국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는 합천 해인사 동제 소종(고려후기, 경남 유형문화재 제400호), 문경 김룡사 동종(조선 1670년, 보물 11-2호), 서울 청량사명 동종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동종과 그 탁본이 소개된다. 특히 국내 최고의 범종 주성기술 보유자로 꼽히는 주철장 원광식(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이 오랜 기간 복원 또는 복제한 범종을 함께 선보인다.



6월 20일 개막한 2017 불교중앙박물관 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에 참석한 내빈들이 통일신라시대 양양 선림원지 종 복원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는 '천상의 소리를 전하다-통일신라 범종' '불법을 담다-고려 범종'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피다-조선 범종' '호국의 염원을 담다-근대 범종' 4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타종·범종 탁본 뜨기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 범종의 웅장한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킨다. 한국 범종은 부처님의 소리 그 자체이며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과학기술 및 예술성이 나타난 결정체"라면서 "범종의 소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 (02)2011-1960

박아름 기자

'두드림 예술' 탁본으로 만나는 불교미술

고판화박물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전

대상물의 표면 무늬와 글, 조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에 종이를 붙이고 먹을 치는 방식의 탁본(拓本). '두드림의 예술'이라고도 일컫는 탁본 중에서도 불교미술탁본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6월 25일~10월 15일 세계불교미술 탁본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을 개최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0여점의 희귀본을 비롯해 한국·중국·일본·티베트·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세계불교미술 탁본 50여점이 소개된다.

예로부터 한국·중국·일본에서는 마애불의 불상, 비석에 새겨진 불화, 석탑, 부도탑, 범종 등의 문양들을 탁본으로 많이 남겼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탁본이 미술의 한 분야로 여겨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한국-국보 제53·54호 연곡사 동·북부도 사천왕,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석굴암 십일면 관음 모조품 등 탁본 △중국-운강석굴, 황흥5년 미륵교각상 뒷면 불전도와 본생도, 명 시대 소림사 주사 달마상 등 탁본 △일본-국보 나라 약사사의 탑 수연의 비천상, 일본 석굴불상 등 탁본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용문석굴의 고양동 마애불 탁본은 전시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약 2m에 달해 한 폭의 대형 불화를 보는듯한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밖에 세계문화유산 돈황석굴의 탁본, 앙코르와트 회랑 벽면의 탁본 등이 전시된다.



세계문화유산 용문석굴 마애불탁본. 132x190cm

한선학 관장은 "세계문화유산의 탁본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이번에 전시되는 희귀 탁본들은 미술사 연구의 좋은 자료"라면서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동양문화의 진수인 불교미술을 탁본으로써 감상하고, 세계 불교미술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